

출산율 감소 여파 어린이집 폐업 속출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있다. 무상교육 이후 7년째 동결된 보육료와 출산율 감소,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의 정부 지원이 맞물리며 민간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보육료 현실화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신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광주는 25곳(2.4%), 전남은 36곳(4.1%)이 각각 폐업했다. 전국 민간·가정어린이집 1,32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만 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

원생 부족 4년새 광주 79개·전남 119개 문 닫아 보육료 현실화·정부지원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연말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광주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9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5곳, 2016년 21곳, 2017년 28곳, 2018년 6월 현재 25곳이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119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지난 2015년 15곳, 2016년 31곳, 2017년 37곳, 2018년 36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업했다.

전국에서는 2015년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에는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상반기 추세로 볼 때 2018년 폐업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광주 1,015곳, 전남 851곳이 운영 중이다. 민간어린이집 폐업 원인으로는 7년째 동결된 보육료를 꼽는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보육료가 몇 년째 고정된 반면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영유아의 수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아 폭행 등으로 교사수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높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 의원 측은 지적했다.

광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월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를 현실화 하라”며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보육료를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교사겸직 지원비 포함)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광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누리과정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보육료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인건비와 급간식비 비중이 현행 보육료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보육료 책정이 시급하다”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조선대 총장직 걸고 대학혁신 강력 추진” 강동완 총장 고강도 혁신 예고

조선대강동완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대학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함께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것이다. 강 총장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뜻밖의 결과로 충격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가결과 각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의신청을 하고 2단계 평가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진단의 핵심지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 건전성 등 3가지 항목이다”며 “2단계 진단에서 대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총장은 “조선대가 최악의 사태에 처하지 않도록 총장직을 걸고 대학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혁신은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1단계에서 조선대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 진단 대상으로 분류됐다. /황애란 기자



“전두환 회고록 출판·판매 일체 중지”

전씨 변호인,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 존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판매가 일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21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회고록에 대한 출판·판매를 일체 중지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고록에 대한 출판·판매를 일체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지법 민사23부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시 1회당 500만원을 지불토록 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사자명에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고광민 기자



“집중하고 쏘세요” 동신대 작업치료학과가 21일 개최한 Play & Fun 두뇌발달 축진을 위한 감각 자극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다.

경찰,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수색 확대

용의자 야산·저수지 이동 정황 추가 파악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용의자가 실종 당일 야산뿐 아니라 저수지 방향으로 이동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용의자가 체류한 시간이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고 추정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 21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양(16·고1) 실종 당일인 지난 16일 강진군 군동면 B씨의 집 마을 도로에 설치된 CCTV에서 오후 9시 20분께 B씨의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을 떠났다가 33분째 돌아오는 모습을 확보했다. 같은 시간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신

호가 4km가량 떨어진 군동면 금사저수지 인근에서 확인됐다. B씨는 16일 오후 1시 50분께 강진읍의 가게에서 나왔으며 2시께 A양 집과 600m 거리에서 그의 차량이 발견됐다. A양은 2시 1분께 친구에게 B씨와 만났으며 해남 방면으로 간다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 B씨 승용차는 오후 2시 15분께 A양 집과 20여km 떨어진 도암면에 진입했고 4시 54분께 다시 마을을 빠져나갔다. B씨는 도암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한태선 기자

광주 자치구 공무원 인건비 편성 버겁다

본예산에 전액 편성 못해 추경에 나눠 올려

광주 5개 구청 중 상당수가 인건비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 5개 구청의 추경안 등에 따르면 3개 구청에서 공무원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당액을 추경에 반영했다. 북구는 2~3개월 치 보수·연금부담금 113억원을 추경에 올렸고 남구는 110억원, 동구는 51억원의 인건비 추경에 반영했다. 반면에 광산구와 서구는 수당·건보보험금·인력변동에 따른 변동액 등

비교적 소액 인건비만 추경에 반영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주 북구는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9.51%로 최하위이고, 남구는 32.74%로 밑에서 네 번째, 동구도 하위 20위권 안에 들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부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자부도가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좁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북구는 자체수입이 970억원, 자부재원이 722억원으로 전체 5,735억원

중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700억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재정 상황에 조기 집행의 성과를 내 상사임이라도 한 푼 더 받고자, 인건비 편성을 줄이고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편성을 조금이나마 늘리려는 지자체도 있다. 광산구와 서구도 재정자립도가 낮기는 마찬가지지만 인구수와 비교하면 예산총액이 많아 여유가 있거나, 세입을 비교적 넉넉히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탓에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이 타 지자체보다 더욱 심각해 발생한 일로, 세입·세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주소는 왜 물어” 폭행

○··만취상 태로 탑승한 택시 안에서 기사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경찰서 행.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김 모씨(63)는 지난 20일 밤 10시 30분께 북구 중흥동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남 모씨(61)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너가 뭘래 주소를 물어봐”라고 말하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택시기사는 만취한 승객에게 조심스레 목적지를 물어본 죄밖에 없는데 봉변을 당했다”며 혀를 끝. /김종찬 기자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1억 1000만원~~
-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H. 010-6834-7400

